

‘꿈의 100승’...두산의 위대한 여정

〈한시즌 역대 최다〉



두산이 KBO리그 사상 최초로 '시즌 100승'을 돌파할 수 있을까? 안정된 투타밸런스를 자랑하는 두산은 30일까지 48경기에서 무려 34승(13패1무)을 올리면서 '꿈의 고지'인 100승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뉴시스

집중점검 | 두산의 놀라운 독주

승률 0.723...역대 최고의 페이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첫 103승 예상
투·타·수·주 안정...144경기 호재

KBO리그 두산의 승수쌓기가 무
되고 있다. 30일까지 2016시즌
(144)의 3분의 1인 48경기를 소화
34승13패1무(승률 0.723)를 기록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2위 NC에
차로 앞서 있다.

우선 사상 최초의 100승 돌파 여
사다. 무승부가 없다는 가정 하에
보면 올 시즌 103승40패1무를 기
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지난
시즌 100승을 달성한 팀은 없었다.
승은 2000년 현대의 91승(40패2무)
는 133경기를 치르던 시즌이다.

KBO리그에서 시즌 100승은 그야말로 '꿈의 고지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팀당 144경기로 확대되면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사실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100승은 쉽지 않다. 지난해 100승을 올린 팀은 세인트루이스(100승62패·승률 0.617)가 유일했을 정도다. 72경기 7할이 넘는 투수의 을 시즌 승률 0.723 역시 높다. 현재 부산사자팬 역대 최고승률은 노달민이다. 역대 한 시즌을 모두 합쳐서 7할 승률을 달성한 팀은 단 2팀뿐이었다. 그 중 역대 최고 승률은 삼성이 전·후기리그 통합우승을 차지한 1985년의 0.706(77승32패1무)다. 2위는 1982년 OB가 작성한 0.700(승32패24무)이다.

그러나 1980년대 기록과 지금의 기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원년인 1982년부터 1988년까지는 단일시즌 체제가 아니었다.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나뉘 치렀다. 경기수도 1985년에 한 시즌 110경기(전기리그 55경기+후기리그 55경기)였고, 1982년에는

순위	구단	승률	성적	시즌 경가수
1	삼성(1985년)	0.706	77승(32패1무)	110
2	OB(1982년)	0.700	56승(24패0무)	80
3	현대(2000년)	0.695	91승(40패2무)	133
4	삼성(1982년)	0.675	54승(26패0무)	80
5	SK(2008년)	0.659	83승(43패0무)	126
※	두산(2016년)	0.723	34승(13패1무)	144

80경기(전기리그 40경기+후기리그 40경기)였다. 단일시즌제를 채택한 1989년 이후로 따지면 7할 승률을 기록한 팀은 없었다. 2000년 91승을 올린 현대의 0.695가 최고 승률이다. 그만큼 7할 승률은 어렵다. 한 시즌 내내 모든 3연전에서 2승1패 위닝시리즈를 달성한다고 해도 승률은 0.667에 그친다.

물론 두산이 현재와 같은 성적을 시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장기

순위	구단(연도)	성적	승률	시즌 경기수
1	현대(2000년)	91승(40패2무)	0.695	133
2	삼성(2015년)	89승(56패0무)	0.611	144
3	SK (2010년)	84승(47패2무)	0.632	133
4	SK (2008년)	83승(43패0무)	0.659	126
5	삼성(2002년)	82승(47패4무)	0.636	133
※	두산(2016년)	34승(13패1무)	0.723	144

※ 2016년 두산 산학협력 최종 성적=103승40패1무(승률 0.720)

레이스를 하다보면 변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투·타·수 주에 걸쳐 약점을 찾기 힘든 두산이다. 거침 없이 질주하는 두산이 올 시즌 '사상 최고 100승'과 '역대 최고승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올 시즌 종착역에서 어떤 성적표를 거머쥘지 궁금하다.

▶강팀 성공모델, 두산 2면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아리아 주타누건(태국)이 한국 여자골프의 올림픽 메달 사냥에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국산 골프 제조업체 볼비가 주최한 LPGA 투어 볼빅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주타누건은 최근 3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을 10위까지 끌어올렸다. 독특한 모양의 우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주타누건. 앤아버(미시간주) | AP사진

태극낭자들 ‘주타누간 경계령’

볼빅챔피언십 우승...3연속 정상 올라
세계랭킹 10위로 강력한 금메달 후보

아리아 주타누간(태국)의 상승세가 무섭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볼빅챔피언십(총상금 130만 달러) 정상에 오르며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주타수간은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앤아버의 트래비스포인트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골라내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함께 15언더파 273타로 우스트로피를 꺾어 안으면서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 킹스밀 챔피언십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주타누간을 보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장악한 박성현(23)을 떠올리게 한다. 주타누간은 골프팬들에게 '새가슴', '불운한 선수'로 알려졌다. 2013년 미국에서 열린 혼다 타이일랜드 초청선수로 출전한 그는 마지막 날 17번홀까지 3타 차 선두를 달려 생애 첫 LPGA 우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트리플보기를 저지하며 박민비에게 연장전을 허용했고, 경연이 부족했던 주타누간은 연장전에서 박민비에게 패했다. 당시 주타누간의 나이는 18세였다. 그러나 주타누간은 불운을 딛고 당당히 LPGA 강자로 우뚝 섰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대니 터 타탄에게였다.

주타누간은 드라이브샷을 290야드 이상 때리는 장타자다. LPGA의 드라이브샷 평균거리 부문에서는 266야드(16루)를 기록됐지만, 무서운 파워력을 지녔다. 뿐만 아니라 쇼트게임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라운드 당 평균 퍼트 수는 30개(17위), 홀당 평균 퍼트 수는 1.79개(29위)로 안정적이다.

출장 박성현이 쇼트게임이 좋아지면서 KLPGA투어를 평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우승으로 주타누간은 세계랭킹 10위가 됐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그는 올림픽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선수들 예전 리더와 고(세계랭킹 1위)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한편 이날 경기에선 김효주가 공동 6위(7점7타 281타), 전진익은 공동 11위(55.0타과 283타)에 올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곤봉 금메달 손연재, 리우올림픽 예감이 좋다

소피아월드컵 전 종목 메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사진)가
곤봉 금메달을 포함해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
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향한 기대감
을 키웠다.

손연재는 29일(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
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



로부터 한주 간격으로 있
아 펼쳐진 타슈켄트, 민스
(벨라루스) 월드컵에는 불
했다. 지난해 발목 부상에
달리며 만족할 만한 성과
거두지 못한 터라 위우을
픽을 앞두고는 체력을 비

하며 부상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휴식으로 잠시 숨을 고른 손연재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좋은 기세를 이어갔다. 28일 개인최고(74.200점)으로 개인종합 동메달을 차지한 뒤

회 마지막 날까지 4개 세부종목에서 메달을 쓸어들였다. 곤봉 금메달뿐 아니라 후프에선 18,650점의 개인최고점(종전 18,600점)으로 은메달을 따냈고, 리본에서도 18,450점으로 은메달을 챙겼다. 볼에선 18,550점으로 동메달을 보냈다.

손연재는 30일 소속사를 통해 “월드컵에서 개인종합을 포함해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리우올림픽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FM에셋

을 검색하세요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

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짹 짹 채워줍니다.



www.fmasset.co.kr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줄줄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